e-Journal *Homo Migrans* Vol.7 (Feb. 2013): 5-10

■ 포룸 ■

마흐두드의 다문화주의: 집단 본질주의 비판에 대한 응답

오 승 은

I. 집단 정체성과 본질주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받는 여러 비판 중의 하나는 사람들을 특정 문화 집단의 일원으로만 봐 그 집단 정체성 속에 가둬 버린다는, '에쓰닉 상자'(ethnic box) 현상일 것이다.[1]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다양성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다문화주의의 수혜자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소수집단 구성원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주류 정치인들의 다문화주의 공격과는 다른 무게를 지닌다. 소수자 출신의 다문화주의 비판자, 일종의 '내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케난 말릭과 같은 이들의 비판 요지는 결국 집단 정체성에 대한 본질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이해 방식이란 집단 성원이라면 어떤 공유된 본질적 특성, 본질(essence)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각 집단 간에는 경계가 명확히 그어져 있으며, 이름이 붙여져 있고, 각기 균질한 그리고 서로 섞이지 않는 소수 집단의 단일 문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일한 여러 개의 조각들이 모여 모자이크처럼 구성된 것이 다문화사회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 마흐두드는 문제는 본질주의이지 다문화주의

1) 대표적인 예로 영국 출신의 지식인 저널리스크 케난 말릭을 들 수 있다. Kenan Malik and Fero Sebej, "Multiculturalism at Its limits: Managing Diversity in the new Europe?", *Eurozine*, http://www.eurozine.com/articles/2011-01-18-debate-en.html.(검색일 2012,11,01).

자체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같은 소수자 집단 출신이면서도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마흐두드는 자신의 저작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5장<Multiculturalism and Essentialism>에서 본질주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체가 없는 집단정체성 현상을 본질주의적으로 '마치 물건이 실제 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 마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 이상의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자연의 사실인 것처럼 인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의 문제점을 인정한다.[2] 본질주의적 접근방식으로는 민족과 같은 집단 정체성이 다층위적으로 구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본질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다문화주의를 허구로만 보고 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反)본질주의도 역시 문제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다문화주의의 '문화'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구성된 것이라고 해서 그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 자체야말로 또 다른 본질주의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본질주의 방식이나 반본질주의 방식 그 어느 것도 민족과 같은 집단 정체성이 다층위적으로 구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흐두드에 따르면 다문화주의 정치를 부상시킨 것은 특정 민족 집단이 언어, 종교, 관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 구조, 권력 관계, 손익 계산과 결정 등이 이런 문화적 속성과 다층위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행위자성(agency)이라는 것은 외부적/객관적 조건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 규범과 민족적 정체성의 작용만으로도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다. 가장 손쉽게 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재원은 결국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이기 때문에 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그 문화적 재원이 그 자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경제 사회적 요인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작동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마흐두드는 1970년대 중반에서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영국에서 나타났던 남아시아 사람들의 자영업 붐을 지적한다. 영국 경제가 불경기로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자, 남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은 동네 구멍가게나 택시 운영 등의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이때 민족 집단 내에서의 관계, 자금 정보, 대출 등 집단 내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3]

---

2) Tariq Modood, *Multiculturalism: A Civic Idea*, Polity, 2007, 111.

3) *Ibid.*, 100.

남아시아 공동체라는 문화적 요소와 불황이라는 외부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는 실질적 경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다른 소수민 집단과는 구별되는 남아시아인들만의 대처 방식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II. 집단주의(groupism)을 넘어서

마흐두드의 소수집단 문화에 대한 비본질주의적 접근방식은 집단 정체성 문제에 내재된 집단주의(groupism) 혹은 집단 본질주의를 비판한 브루바커(Rogers Brubaker)의 논지에 많이 기대어 있다.[4] 집단주의란 브루바커에 따르면, 경계가 나뉘어져있는(bounded) 각기 다른 집단들이 사회생활의 기본적 구성요소이자, 사회갈등의 주요 행위자이고, 사회분석의 근본적 단위라고 보는 입장이다. 계급, 에쓰닉 집단(ethnicity), 젠더, 다문화주의 등을 분석하고 연구함에 있어 '집단'group과 '집단성'(groupness)을 기본적이고 불가결한 개념으로 당연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 에쓰닉 집단, 민족, 인종을 실체가 있는 독립체로 보게 되고, 이들이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행위자성을 발휘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집단주의 관점에서 보면, 구(舊)유고슬라비아의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 무슬림이나, 북아일랜드의 가톨릭교도들과 신교도 등은 모두 내적으로는 동질적이면서 외적으로는 경계가 나눠져 있는 존재들로 인식되며, 심지어 공동의 목적을 가진 통합된 집단 행위자들로 물화(reification)시켜 보게 된다.

집단을 결국 단일한 개인의 확대판(groupist individual)으로 보는 집단주의는 여러 관점에서 공격 받아왔었다. 게임이론 관점에서는 집단주의 보다는 개인주의적 접근 방법을 더 중시하였고,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관계를 더 중시하였고, 포스트-모던 이론에서는 집단을 파편적이고 일시적인 형태를 띠는 것으로 고정되고 분명한 경계는 계속 침식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집단을 보는 시각이 본질주의에서 구성주의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

4) Rogers Brubaker, *Ethnicity without Group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1장 "Ethnicity without Groups."

그러나 유독 '에쓰닉, 인종, 민족 갈등'의 경우 이러한 집단주의적 시각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에쓰닉 갈등(ethnic conflict)은 '특정 에쓰닉 집단 대 다른 특정 집단의 투쟁'으로, 인종 갈등(racial conflict)을 '한 인종 집단 대 다른 인종 집단의 투쟁'으로 보는 경향이 지속되어왔다. 정치적 지도자들과 당사자들이 에쓰닉 갈등을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집단 대 집단의 갈등으로 정의하고 그렇게 형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 심지어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을 실행한다고 하는 연구자들조차도 그런 민족주의적 정치 물화프로젝트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브루바커의 주장이다.

에쓰닉 정체성(Ethnicity) 다시 생각하기

연구자들이 집단 정체성을 물화시키고 있다는 이러한 비판은 기존의 연구 경향을 다시 재고하게 만든다. 물론 에쓰닉 집단(ethnicity), 인종, 민족을 재고한다고 해서 이들이 차지하는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중요성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집단 범주가 가진 현실, 권력, 중요성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보자는 것이다. 인종의 현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인종의 존재를 당연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집단 정체성을 마치 실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물화를 강화시키는 관행을 탈피해보자는 것이다.

브루바커가 제안하는 새로운 연구 방향이란 에쓰닉 집단(ethnicity)과 같은 집단성을 역동적이고 끝없이 발생하는 사건이자 과정으로써, 또한 프로젝트로써 접근하는 것이다. 실질적 독립체가 아닌 상황의 지배를 받는 특정 행동(situated-action)으로, 문화적 특징으로, 인식론적 틀로, 담론 틀로, 제도로, 정치 프로젝트로, 우연적 사건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체를 가진 고정불변의 상수가 아닌 맥락에 따라 변동을 거듭하는 개념적 변수로 인식하고 이를 기본 분석단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에쓰닉 집단・인종 등의 집단성(groupness)은 하나의 사건(event)으로 볼 수 있다. 집단성을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닌 우연적 변수로 본다면, 특정 집단이 보여주는 일치감과 단결심을 내재적 특성이 지속되는 불변의 과정이 아닌 일시적 사건으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으로 봤을 때야 비로소 왜 어떤 민족 동원정책은 성공하는 반면 또 다른 에쓰닉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는지를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 만들기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집단성을 변수로 보고, 집단을 고정불변의 속성이 아닌 범주로 고찰한다면, 집단 만들기를 일종의 사회, 문화, 정치적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에쓰닉・인종・민족이라는 범주를 실존하는 집단으로 만들고, 집단성을 끌어내고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최악의 정치(politique du pire), 즉 짧은 기간 내에 일부러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 민족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지지를 끌어내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 벌이는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구(舊)유고슬라비아의 민족청소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에쓰닉 문제의 틀을 해석틀로 삼지 않는 것이다. 에쓰닉 갈등(ethnic conflict)이 특정 에쓰닉 집단 대 또 다른 집단의 대립으로 자꾸 비쳐지는 것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에쓰닉 갈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에쓰닉 프레임, 에쓰닉 코드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는 에쓰닉 문제를 단순히 에쓰닉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에쓰닉한 문제로 재구성하는 적극적 참여 행위가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에쓰닉'이라는 라벨을 부치는 것 자체가 그 사건의 사회적 구성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자, 언론인, 정책 입안자등은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에쓰닉(ethnic)/민족(national)이라는 틀로 짜지 말고, 살인, 전쟁 지배권, 기회주의적 약탈과 암시장 부당이득 등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 갈등, 폭력 등에 있어서 조직화의 중요성,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민족 지도자들의 민족 이름을 내건 발언과 행동의 모호한 성격 등을 비판적으로 꿰뚫어 보고 이해관계로 해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민족 정치의 수사학이 갖는 수행 성격(performative), 즉 그 말을 함으로써 실제가 되는 현실을 인식한다면, 이들 집단주의적 언표를 실제 집단성으로 또 민족적 언표의 대상으로

추정되는 집단을 세상의 실제하는 실체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 정치로 먹고 살며 정치를 위해 사는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이것이 같은 민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고 분기되는 지점을 인식함으로써, 지도자들의 신념, 욕구, 민족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넷째, 문제는 '존재' 혹은 '실체'가 아닌 '관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에쓰닉, 인종, 민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재현하는 방식이다. 그 자체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점이다. 사물을 보는 눈, 해석하는 것, 추론하는 것, 기억하는 것 등은 이미 많이 에쓰닉화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에쓰닉화 된 틀과 내러티브를 적용한다면, 이는 이미 과도하게 에쓰닉화 된 인식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단순히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언제 사람들이 스스로를 집단과 동일시하고 타자를 인식하는지 세상을 경험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인종・에쓰닉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또한 에쓰닉 갈등을 변수와 우연 요소, 집단성의 증가와 쇠퇴라는 입장에서 관찰하게 되면, 집단성이라는 것은 항상 최고 상태로 발현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집단성의 부침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정책 개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브루바커의 이러한 제안은 아직은 원론적 차원에 머무르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특히 인종이나 민족 등의 '집단'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문제가 생기면 과도하게 민족주의나 인종주의 틀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들 갈등을 부추기고자 하는 세력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narodna21@hanmail.net